

제2코스 퇴계선생의 숨결이 깃든 곳

제2코스는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사제의 길이다.
퇴계 선생의 생을 함께한 길이며, 퇴계의 후손들이 청빈한 선비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온 원촌마을까지 관람할 수 있다.
퇴계에던길 어느 구간보다도 퇴계의 숨결이 살아 있는 길이다.

